



# 중전기기산업의 경쟁력향상

이 우 공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요즘 세상은 온통 세계화 물결이 구석구석에까지 스며 들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장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에서나 또는 과거에는 백화점의 외국제품 전용코너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던 외국 제품이 이제 백화점의 구석구석은 물론 1층 전체가 온통 외국제품 전용층으로 바뀌어 가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식품, 의류,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가정용제품이 외국제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으나 전기 다리미, 전기면도기, 토스터, 주서, 믹서, 커피메이커 등은 전년대비 60% 이상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전압조정기는 43%, 발전기는 36%, 차단기가 29%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어 우리 중전기기제품도 알게 모르게 외국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중전기기는 내수의 60%가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기술과 제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 가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서서히 우리 중전기기도 내수시장에서 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시장을 잃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도 중전기기분야는 단체수의계약품목을 포함하여 변압기 및 정지형변환기류, 개폐기 및 차단기류, 배전반 및 제어반류, 전선 및 케이블류 등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서 당분간 예외로 되어 있으며, 이 품목들이 한전이 구매하는 총물량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데서 안도할 수 있겠으나 최근들어 중국으로부터 품질 좋고 값싼 제품들이 우리 시장을 서서히 파고 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술후진국이 아니라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으나 단지 상업화기술이 다소 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다. 근래에 미국의 W/H사의 중국 현지공장 가동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중국 W/H사 제품의 품질과 경제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95년과 '96년에 일본이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격, 품질 및 성능면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선류, 금구류 등은 품질과 성능면에서는 1위, 가격면에서는 1~2위 수준이며 그외의 중전기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2~3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기반이 약한데다가 수출없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향상, 고부가가치화, 소형·경량화가 동남아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 이제부터의 전쟁은 국가간의 관세 무세화정책인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무세화협상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곧이어 또다른 분야의 관세무세화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

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통상산업부에서는 지난 4월에 중전기산업의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2000년대의 중전기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전기산업 발전전략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중전기 업체들의 적극적 기술개발 의욕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전기 업체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단합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아주 약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업체들을 도우려 해도 업체가 동참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중전기는 반드시 개발시험이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지만, 수입되는 일부 중전기는 시험도 받지 않고 수입면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우리 제품이 외국 수입제품에 비해 시험을 받는 직·간접비용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제품도 우리제품과 동등하게 시험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어야 하고 또 시험기관의 확충 및 기술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통상산업부가 이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정부와 한전 그리고 업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중전업체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정부인들 누가 업계의 손을 끌고 가려 할 것인가? 정부나 한전이 전기업체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우리 중전업체가 이대로 가다가는 2000년이 오기 전에 엄청난 시련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최근 몇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중전기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중전기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95년 우리나라 중전기의 총수입액은 28억 2천만불이었고 수출은 9억 5600만불로 수입이 수

〈표 1〉 우리나라 중전기 수급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92			95			96 전망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수 요	3,686	538	4,224	4,963	957	5,920	5,355	1,283	6,638
공 급	2,495	1,729	4,224	3,100	2,820	5,920	3,378	3,260	6,638

출의 3배 정도나 되며 내수는 49억 6300만불로 수입이 내수의 56.8%를 점유하고 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92년에는 수입이 내수의 46.9%이던 것이 '95년에 56.8%로 늘어났고, 생산대 수입비중을 보면 '92년에 수입이 생산의 69.3%이던 것이 '95년에는 90.7%로 늘어났으며, '96년에는 수입 비중이 96.5%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 중전기산업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수출이 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수출도 '95년에는 전년대비 29%나 늘어났고 '96년도에 2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액이 수출액의 3배나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생산과 내수의 증가상태를 보면 내수는 연평균 10%가 증가되는 반면에 생산은 연평균 7.5% 증가에 불과하여 중전기산업의 투자가 얼마나 저조한지 별도의 투자자료를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95년 중전기 중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을 금액상으로 보면 변압기가 3억 6900만불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변환장치로 1억 1500만불이었고 배전제어장치가 8600만불, 전기용접기가 6500만불 그리고 전동기가 5900만불, 발전기가 4900만불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변환장치로서 92%로 가장 높고 배전제어장치가 62%이며 차단기

〈표 2〉 주요기기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변압기	변 환 장치	배전제어 장치	전 기 용접기	전 동 기	발 전 기	전 동 구	차 단 기	전 압 조정기
'95	369 (20.2)	115 (57.2)	86 (4.1)	65 (249)	59 (-1.1)	49 (19.3)	43 (20.8)	33 (35.6)	31 (75.7)
'96 1~10	336 (13.5)	168 (92.0)	115 (61.9)	43 (-21.7)	46 (-6.2)	43 (10.2)	32 (-7.1)	36 (29.3)	27 (2.9)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가 2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수입은 배전제어장치가 4억 5700만불, 전기로 및 가열기가 4억 2100만불, 전동기가 3억 3200만불, 전기용접기가 3억 2000만불, 변압기가 2억 7800만불 그리고 발전기도 2억 6800만불이 수입되었다(표 3 참조).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변환장치가 42%로 가장 높고 발전기가 36%, 전동공구도 21%나 된다.

중전기기의 '95년 무역수지 적자는 18억 6300만불로 전년보다 4억 2100만불이 늘어났으며, 적자폭은 연평균 16.1%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전기업체도 전문화, 계열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업체의 M&A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내수에 비하여 생산업체수가 너무 많고 한 업체가 다품종기기를 생산함으로써 출혈경쟁에다 전문성까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품질, 성능, 생산성 등이 저하되고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신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등 기술개발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면 망한다는 말은 공공연한 말이 아니다. 중전기기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해도 구매기관이 구입해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중전기기는 수요자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기술개발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즉, 수요자가 최신기술로 구매사양서를 작성한다면 업체는 그 구매사양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하게 되지만, 구매자가 낙후된 기술로 구매사양을 작성하면 그 제품은 낙후된 기술로밖에 제작공급할 수 없다. 또한 구매도 한전이 중전기 총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있으므로 한전이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한전과의 협력연구나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한 제품에 대한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전기 업체들이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나 한전이 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극대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제품을 정부기관 등이 우선구매를 해주고 시장의 협소함과 기술개발 투자액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일이 요구되며, 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각 분야별 업체수의 축소가 필요하다. 또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내수에서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 통상산업부도 중전기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 수입기기도 국산기와 마찬가지로 시험·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 외국정부 또는 전문검사기관간에 시험·검사의 상호인증을 구축해 나아가고
- 국내 시험·검사설비의 신·증설 및 노후설비 교체도 추진하며
- 전문기술인력 양성·확보를 위한 훈련센터를 건설하고
-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선정 및 생산전문화를 유도하며

- 제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도 추진해 갈 것이다.

우리 중전기업체들도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정부와 한전의 기술개발 지원자금과 산업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상품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경제성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기기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배전제어장치	전기로 가열기	전동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발전기	전자석	변환장치	전공구
'95	457 (41.1)	421 (40.6)	332 (2.8)	320 (49.0)	278 (25.0)	268 (63.9)	183 (30.9)	136 (-3.1)	59 (14.6)
'96 1-10	380 (1.9)	213 (-42.2)	305 (8.2)	277 (13.9)	350 (9.9)	278 (36.3)	159 (5.1)	157 (41.9)	60 (21.1)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